



지난 26일 일동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일동시장조합 및 일동시장환경개선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조합설립에 관한 상황보고를 듣고 있다.

일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조합구성 조합장에 이우복, 부조합장 박종호 원공재氏 선출

일동시장조합 창립총회 겸 환경개선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원공재) 회의가 일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26일 개최됐다.

50여명의 시장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는 일동시장조합 창립을 위한 조합·임원을 선출하고 아케이드공사, 바닥공사, 간판공사, 주차장, 합병정화조공사 승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다.

일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포천동, 소흘읍, 영북면, 일동면이 결합해 일동면이 경기북부지역에서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도비 7억3천만 원과 시비 3억5천만 원, 자부담 10% 등 총 13억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장상인들이 부담하게 될 자부담 10%는 지난 22일 통과된 재래시장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최초 20%

에서 10%가 경감되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다.

이날 일동시장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장 이우복 ▶부조합장 박종호, 원공재 ▶이사 김윤중, 김창덕, 김태중, 김재수, 신재영, 원남재, 유재성 ▶감사 김인철, 임종석 ▶총무부장 이희석 씨가 임원으로 선출됐다.

이 사업은 조합원 51명이 구성되었을 때 포천시와 협의하에 시작되며 도로확장, 주차장 건설, 다리건축 등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은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며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론과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송전탑 건설 反對한다’

일동면 주민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 구성



일동면 주민과 관련단체에서는 한전에서 건설예정인 송전탑 건설에 반대키로 하고 마을 반상회나 현수막 등의 부착으로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알리고 있다.

일동면 주민들은 한전 고압송전로 건설계획에 반대키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지난 11일 대책위 회의를 열고 임종수 청년회장을 포함 4명의 대책위원장을 선출, 일동주민 전체의 합의를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일동종교에서 열린 일동면민의 날 행사에서 고압선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717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1천450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전력에 항의 방문 했지만, 한전 측은 11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지난 29일에는 일동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포천시에 시장면담을 요청, 박윤국시장과 송전탑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대책위는 한전의 고압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일동면의 청계산-청계호수-대원사 뒷산-일동농협과 제일원전사이-별천지 앞-금주

산 8부 능선을 관통해 가는 것으로 일동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송전탑 건설계획은 최초 4~5개의 안을 놓고 한전 측의 환경평가 등 평가과정을 통해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확정된 바로는 송전탑의 높이는 70m~90m에 달하고 거리는 평균 350m마다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송전탑이 세워지고 나면 일동면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일단 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앞으로 2천명의 서명을 더 받은 후, 현수막을 붙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반대의 입장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에서 대책위는 주민들의 입장을 밝혔고, 박윤국 시장은 송전선로가 지나지는 일동면, 신북면, 창수면 주민들의 합의하에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발간된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예정인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사업'은 총길이 64.5km로 가평, 홍천, 춘천을 거쳐 포천의 일동, 창수, 신북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었고, 이 구간엔 건설될 송전탑은 총189기로 포천에만 65개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대체의학이 21세기를 바꾼다⑨ 놀라운 대체의학의 세계 III



전세일 포천중문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장

대체의학에도 서양의학과 관련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동양의학에 가까운 것들도 있다. 지난해에 서양의학과 밀접한 대체의학에 대해 다룬데 이어 이번호에는 동양의학에 밀접한 대체의학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유르베다 의학
아유르베다 의학은 인도에서 5천년 이상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 온 의학체계이다. 아유르베다는 의학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일상 과학이며 모든 치료의 모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유르베다의 기본철학이다.

자연의학
자연 의학은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낫게 하는 항상성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의 힘을 빌려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킨다"는 이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명상요법
명상요법은 명상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통증, 고혈압, 심장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요가
인도에는 아유르베다, 탄트라, 요가가 있는데 요가는 신성(神性), 즉 진리와의 결합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요가 요법은 자제와 호흡 그리고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 및 혈압강하 효과, 심장 박동을 고르게 하는 효과, 노쇠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공치료
기공치료는 수 십 세기 동안 동양문명권에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건강법인데, 호흡조절과 정신집중, 육체운동을 어떤 형식에 따라 반복함으로써 기혈(氣血)을 고르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고 병도 낫게 하는 방법이다.

생약요법
생약요법은 식물의 잎이나 뿌리나 열매를 적당히 섞어 먹음으로써 치료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동양에서는 한약재라 하여 주로 의도인들이 다루지만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꽃요법
꽃요법은 꽃을 이용하여 치료효과를 얻으려는 방법인데, 직접적으로 신체 및 정신의 양면으로 감정의 상태를 호전시키려는 것이다. 감정은 신체 건강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효과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이다.

향기요법
향기요법은 향기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식물이나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정유를 사용한다. 호흡기 계통의 박테리아성 감염, 면역 결핍, 피부질환, 방광염, 단순성 헤르페스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사용된다.

소리요법
소리요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로써 정신과학적 치료과정, 저혈압이나 지속적 통증의 치료, 학습능력 저하의 치료과정에 사용되며, 운동감각과 균형감각 각 그리고 인내력 등을 향상시킨다.

원예요법
원예요법은 꽃을 피우고 채소를 가꾸고 식물을 키우는 원예행위를 통하여 환자에게 자신감과 자존심을 길러 줄 수 있으며, 정신박약자나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사요법
반사요법은 "인체의 특정 부위에 외부 자극에 특별히 예민하고 그 부위를 자극하면 체내의 다른 부위에 반사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하에, 마사지나 지압술 또는 열자극을 가함으로써, 그 국소 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까지도 증진시킨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요법이다.

봉침요법
봉침요법은 문자 그대로 벌에게 쏘임으로써 치료효과를 얻는 치료법이다. 몇 군데 피부 부위를 선택하여 인위적으로 벌침을 꽂아 줌으로써 통증의 감소, 관절염의 호전, 전신 건강의 증진 효과를 얻는 치료법이다.

접촉요법
접촉요법은 아주 간단하거나 또는 아주 복잡한 접촉(接觸, Touching, 만져 주는 것)법을 이용해서 치료적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심령치료법
심령치료법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는 소위 초 능력이자 특수한 심령적 기술을 환자에게 행해 줌으로써 질병이 치료

카메라 고발



아직도 포천군?

포천시 선단동에서 동두천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 신북면으로 가는 표지와 좌측으로는 동두천으로 가는 길 삼거리에 두개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포천군'이라고 표기돼 있다. 지난 19일로 시승격 1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잘못된 이정표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유명무실한 도로?

소흘읍 송우리 택시정류장 맞은편에 개설된 4차선 도로. 평상시 불법주차와 행상차량들이 점거하고 있어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도로는 송우초등학교 앞을 지나 송우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된다. 그러나 송우초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문제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완공된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할 것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베이스타운 퍼브릭골프장 전동카 수로에 빠져 엠블런스도 진입하다 수로에 빠져 30분 이상 지연

퍼브릭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퍼블리가 이동하기 위해 전동 카를 몰다가 인근 수로에 빠져 전차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퍼브릭 골프장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4일 포천 베이스타운 퍼브릭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이모씨(51.의정부시 호원동)에 의해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 1년간 20여차례나 필드경험이 있었으나 이같은 사고는 처음 당한다"며 "전동카도 오래되고 스키장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다보니 위험한 느낌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세서리를 밟아 수로에 빠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엠블런스도 골프장으로 진입하다가 수로에 빠져 30분이나 지연돼 환자의 통증이 가중되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베이스타운 퍼브릭 골프장 관계자는 "본인 과실이므로 골프장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골프장마다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고도 본인 과실이지만 일정부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제272호(2004. 6.21 1면)에 베이스타운 퍼브릭골프장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머리쪽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맥파를 조선온돌침대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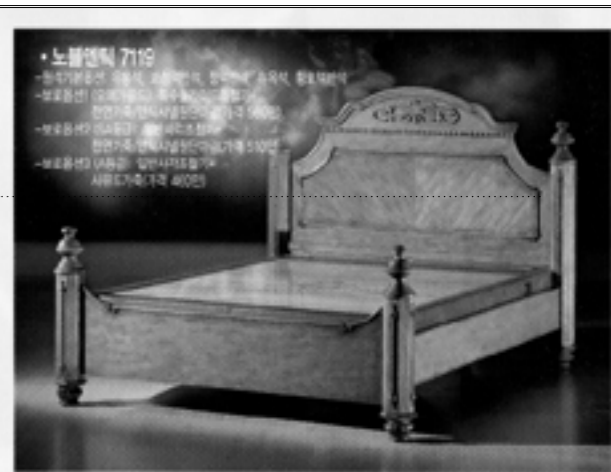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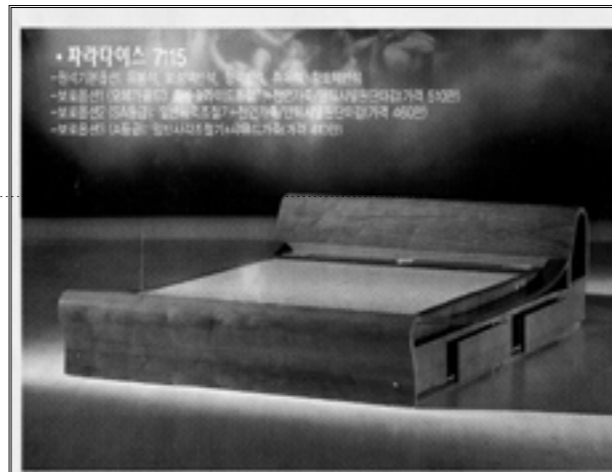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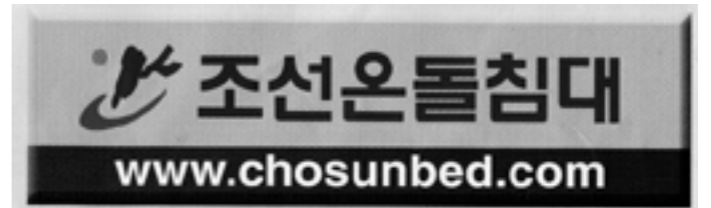
세계 제일의 침대를 만들어가는 기업

◆ 뉴블루밍 7122

- 원목(보통) : 원목, 보성대리석, 황색반석, 석유석, 오프 화이트
- 보통(오프) : 오프(가죽) : 특수소재(드림) + 천연가죽, 현대(사물) + 천연가죽 (가죽 560만)
- 보통(오프) : (A등급) : 일반소재(가죽) + 천연가죽, 현대(사물) + 천연가죽 (가죽 510만)
- 보통(오프) : (A등급) : 일반소재(가죽) + 천연가죽, 현대(사물) + 천연가죽 (가죽 460만)



◆ 조선온돌, 흙, 맥반석, 옥돌침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12-1 송우가구단지 TEL : 031)541-6114 H·P : 011-354-6485 대표 : 양주승